

# 非OPEC의 석유공급 전망

0 GJ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세계 총석유매장량은 1조배럴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량이 증가한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콩고, 이집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오만, 파푸아뉴기니 등이고 감소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영국, 이란,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이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간 감소한 4천 9백만조입방피트이다.

최근 非OPEC의 석유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향후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상반기동안 산유국들은 러시아의 석유공급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전체로는 기술 향상등으로 증가하여 비록 세계유가가 안정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90년대 중반 러시아의 석유생산이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자 [그림-1]에서 보듯이 非OPEC의 석유생산 증가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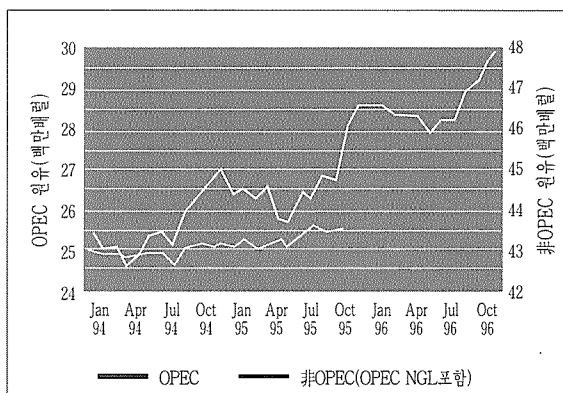
非OPEC의 석유증산전망과 OPEC의 50만b/d NGL생산증대계획(1996년 260만에서 2000년 310만b/d)을 감안할 때 2000년 對OPEC의 석유수요는 2,600~2,800만b/d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90~1995년 非OPEC의 석유공급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에서 430만b/d감소한 반면 OECD국가에

서 240만b/d증가, 개도국에서 200만b/d증가, 기타 (Refinery processing gains) 25만b/d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다.

'90년대 하반기는 미국 노후유전의 급격한 생산감소와 '90년대 말의 북해유전의 생산피크가 격입에 따라 OECD석유생산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남미의 개도국과 아시아·아프리카의 석유생산은 '90년대 상반기보다 훨씬 더 큰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바는 향후 구소련의 생산증대로 5년후에는 러시아에서 50만b/d, 그외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50만b/d, 총 100만b/d이상이 증가할

[그림-1] OPEC 과 非OPEC의 석유공급



### 2000년 非OPEC의 석유공급 전망

(단위 : 백만배럴,%)

	1990	1995	2000	증가량		증가율	
				'90-'95	'95-2000	'90-'95	'95-2000
非OPEC 計	42.0	42.3	47.8	0.3	5.5	0.1	1.7
OECD	18.9	21.3	22.9	2.4	1.6	2.4	0.5
非OECD	10.3	12.3	14.7	2.0	2.4	3.6	2.5
FSU	11.5	7.1	8.4	△ 4.4	1.2	△ 9.1	3.3
Refinery processing gains	1.3	1.5	1.7	0.2	0.2	3.5	2.9

### 2000년 북미의 석유공급 전망

(단위 : 천배럴,%)

	1990	1995	2000	증가량		증가율	
				'90-'95	'95-2000	'90-'95	'95-2000
미국	8,990	8,646	8,050	△ 344	△ 596	△ 0.8	△ 1.4
알래스카	1,762	1,497	1,165	△ 265	△ 332	△ 3.2	△ 4.9
멕시코만	807	1,031	1,860	224	829	5.0	12.5
텍사스	1,854	1,508	915	△ 346	△ 593	△ 4.0	△ 9.5
기타 L.48	2,975	2,534	1,950	△ 441	△ 586	△ 3.2	△ 5.1
NGL 및 기타	1,592	2,076	2,165	484	89	5.5	0.8
캐나다	1,973	2,396	2,455	423	59	4.0	0.5
멕시코	2,980	3,096	3,550	1,116	1,068	0.8	2.8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非OPEC의 석유공급총량은 '95년 4,230만b/d에서 2000년 4,780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OECD의 석유공급전망

OECD의 생산패턴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석유생산은 향후 5년동안 50만b/d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북해지역의 생산은 1998~99년 피크를 기록한 후 2000년에 140만b/d 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미국의 석유생산은 865만b/d로써 '94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90년 생산량보다 34만 5천b/d 적은 수준이다. 텍사스의 육상유전에서 연평균 4%, 알래스

카 및 기타 L.48주에서 연평균 3% 감소하였고 멕시코 만에서 연평균 5% 정도 증가했을 뿐이다. 하반기에도 텍사스와 알래스카에서 10%와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 L.48주는 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멕시코만의 심해유전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는 관계로 전반적인 미국의 석유공급은 약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90년 상반기 동안 연평균 4.0% 증가하였으나 기존 유전의 생산감소로 하반기는 0.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멕시코는 매장규모에 비하여 석유생산 증가세는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하반기는 상반기의 연평균 0.8% 증가에 비해 높은 2.8%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북해지역은 영국이 상반기의 연평균 8.0% 증가보다

## 2000년 북해지역의 석유공급 전망

(단위 : 천배럴,%)

	1990	1995	2000	증가량		증가율	
				'90-'95	'95-2000	'90-'95	'95-2000
영국	1,903	2,792	3,530	833	794	8.0	4.8
노르웨이	1,719	2,932	3,665	1,213	596	6.1	3.8
덴마크	96	188	200	92	13	14.4	1.3
네덜란드	47	38	12	△ 9	△ 26	△ 4.2	△ 20.6
독일	9	10	8	1	△ 2	2.1	△ 4.4
네덜란드 NGL	4	14	10	10	△ 4	28.5	△ 6.5

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연평균 4.8%의 증가가 예상되고 노르웨이는 상반기 연평균 6.1%증가율보다 낮은 3.8%가 예상된다. 그외 네덜란드, 독일지역을 비롯한 기타지역은 상반기 연평균 9.9%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하반기는 연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非OPEC개도국의 석유공급

개도국의 생산패턴은 중남미, 아프리카지역의 큰폭의 증가와 아시아 및 非OPEC 중동지역의 생산량 불변으로 특징지어진다. 중앙 및 동부유럽의 생산은 '95년의 26만9천b/d에서 11만b/d증가한 28만b/d가 예상된다.

중남미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를 중심으로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非OPEC 개도국의 생산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 지역의 총

석유생산(멕시코제외)은 '95년 286만b/d보다 4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브라질이 '95년의 73만2천b/d에서 75만3천b/d증가한 148만5천b/d가 될 전망이며 콜롬비아는 '95년의 59만8천b/d에서 40만2천b/d증가한 100만b/d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非OPEC 아프리카는 '90년 하반기동안 개도국중 두번째로 석유생산의 폭이 많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량은 상반기의 20만2천b/d에서 하반기는 이보다 3배인 59만6천b/d증가하여 총석유공급량은 285만b/d가 예상된다. 이 지역의 최대 산유국은 이집트로서 노후유전으로 증가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알골라로 Soyo육상유전의 재가동에 힘입어 '90년 하반기는 10만6천b/d증가한 76만b/d가 될 것으로 보인다.

非OPEC 아시아지역은 상반기의 61만6천b/d보다 대폭 준 38만7천b/d 증가하여 총공급량은 544만b/d

## 2000년 구소련의 석유공급전망

(단위 : 천배럴,%)

	1990	1995	2000	증가량		증가율	
				'90-'95	'95-2000	'90-'95	'95-2000
구소련 총계	11,482	7,133	8,345	△ 4,349	1,212	△ 9.1	3.3
러시아	10,362	6,165	6,685	△ 4,197	520	△ 9.9	2.1
카자흐스탄	531	419	860	△ 112	441	△ 4.6	11.1
아제르바이잔	252	187	310	△ 65	123	△ 5.8	12.0
기타	337	362	495	25	133	1.4	4.7

2000년 非OPEC 개도국의 석유공급 전망

(단위 : 천배럴,%)

	1990	1995	2000	증가량		증가율	
				'90-'95	'95-2000	'90-'95	'95-2000
라틴아메리카	2,174	2,857	4,180	683	1,323	5.6	7.0
브라질	631	732	1,485	101	753	3.0	15.2
콜롬비아	440	598	1,000	158	402	6.3	10.8
아르헨티나	483	714	740	231	26	8.1	0.7
에쿠아도르	290	383	485	93	102	5.7	4.8
기타	244	320	290	76	-30	5.6	-1.8
NGL	86	110	180	24	70	5.0	10.6
아프리카	2,052	2,254	2,850	202	596	1.9	3.1
이집트	905	895	935	-10	40	-0.2	0.9
앙골라	504	654	760	150	106	5.3	3.0
콩고	189	208	300	19	92	1.9	7.6
남아프리카공화국 (Sasoil 포함)	140	174	225	34	51	4.4	5.3
기타	255	259	550	4	291	0.3	16.3
NGL	59	64	80	5	16	1.6	4.0
아시아	4,437	5,053	5,440	616	387	2.6	0.4
중국	2,768	2,990	3,210	222	220	1.6	1.4
말레이시아	622	685	755	63	70	1.9	2.0
인도	673	671	650	-2	-21	-0.1	-0.6
브루나이	134	175	175	41	0	5.5	0.0
베트남	52	171	245	119	74	26.9	7.5
파푸아뉴기니	0	102	50	102	-52	na	-13.3
기타	127	133	170	6	37	0.9	5.0
NGL & SMOS	61	126	185	65	59	15.6	8.0
기타중동	1,322	1,907	1,985	585	78	7.6	0.1
오만	680	854	845	174	-9	4.7	-0.2
시리아	392	613	600	221	-13	9.4	-0.4
예멘	195	369	450	174	81	13.6	4.0
기타	55	71	90	16	19	5.2	4.9
중·동유럽							
유럽	336	269	280	-67	11	-4.4	0.2
루마니아	163	141	130	-22	-11	-2.9	-1.6
기타	132	99	115	-33	16	-5.6	3.0
NGL	41	29	35	-12	6	-6.7	3.8

\* Shell의 중질유 합성장치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푸아뉴기니의 대폭적인 생산량감소와 베트남의 소폭증가가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의 최대산유국인 중국은 동부지역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서부지역의 유전개발과 해안지역의 생산증대에도 불구하고 타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폭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구소련의 석유생산은 상반기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그후부터 2000년까지는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연평균 9%이상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연평균 3.3%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석유생산은 '90년 이후 400만b/d나 감소했으나 감소추세는 최근 2년에 상당히 둔화되었다. 특히 '96년은 전년대비 2.5%감소할 것으로 보여 '90~94년의 연평균 12%감소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 <OGJ, Dec. 25, 1995 김주현 옮김>